

전남 서남해안 해양레저스포츠 중심지 육성

요트투어 상품·해양서핑체험센터·섬 투어 등 용역 통해 20개 전략 과제 발굴 해양레저 활성화

전남도가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교육·스포츠·시설·관광 분야 등 20개 전략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다양한 지역 특화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 했다.

우리나라 해양관광 시장은 전체 관광시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 대부분이 1년에 1회 이상 해양관광을 즐기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여가생활과 웰니스 관광을 즐기게 되면서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정부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면서 전남지역 현장에서 접목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발굴했다.

전남의 비교우위 천연자원인 섬, 갯벌, 해안선, 바닷가 등을 활용한 해양레저스포츠 콘텐츠 개발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육, 스포츠, 시설, 관광 등 4개 분야 20개 전략이다. 분야별로 교육의 경우 해양레저스포츠의 미래 인력 양성과 수요창출을 위해 전남의 역사자원을 활용한 요트투어 상품과 초·중·고 대학생들의 친수문화 확산 방안을 마련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목포 등 16개 연안 시·군이 지닌 해양자원과 해양스포츠를 결합한 각종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개최 방안을 제시했다.

시설 분야에서는 다른 시·도와 비교우위에 있는 해양서핑체험센터 등 기반 구축 방안을 발굴하고, 관광 분야에서는 섬 투어 등 해양관광객 유치 전략

과 해양스포츠와 관광을 접목한 마을기업 육성 전략을 도출했다.

전남도는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 보완한 후 시

군과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추진 20개 과제를 확정하고, 국비 확보를 통해 해양레저 활성화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해양레저스포츠는 해양관광의 핵심 분야”라며 “에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연륙 연도교 개통 등 섬·바다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절호의 기회를 맞아 전남 서남해안을 명실공히

해양레저 스포츠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에서는 목포, 여수, 고흥, 보성, 함평 등 5개 시·군에서 파워보트, 윈드서핑, 비치발리볼, 바다수영 등 해양레저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들의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요트, 스쿠버, 카약, 패들보트 등 11개 무료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함께해요 저출산 극복 8일 오후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린 인구문제에 대한 이해와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한 '제8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정중제 광주시행정부시장과 참석자들이 저출산 극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 '기업 프렌들리' 광역단체장 선정

매일경제 설문조사 결과 2위

이용섭(사진) 광주시장이 '기업 프렌들리 광역단체장'으로 선정됐다.

8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신문이 대기업 50곳과 중소기업 50곳 등 모두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 프렌들리 광역단체장'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시장은 2명의 복수응답을 허용(총 200표 중 177표 응답)한 '기업 환경 개선 광역단체장'을 묻는 질문에서 24표를 얻었다. 31표를 받은 이재명 경기 지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목을 받았다. 지난달 28일 주요 대주주인 광주시와 현대차를 비롯해 투자기관 32곳이 모여 '광주 완성차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식'을 진행했다. 자본금 2300억원이 총출됐다. 다음달 법인 설립을 마치고 연말 공장을 착공하고 2021년 하반기에 차량을 생산하게 된다.

이 시장은 특히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노사상생도시'를 선언했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그는 “자원이 없고 입지와 접근성이 불리한 광주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사상생도시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광주에 투자하면 수익이 난다”는 공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이 밝힌 노사상생도시는 노동자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기업에는 적절한 수익을 보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노사상생도시의 필수조건인 노동계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동협력관과 사회연대일자리특보를 임명했다.

3위는 17표를 받은 이시종 충북지사, 4위는 14표를 얻은 오거돈 부산시장, 5위는 13표를 획득한 김경수 경남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함께 땀했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12표)도 10표 이상을 얻으며 뒤를 이었다. 3표를 얻은 김영록 전남지사는 양승조 충남지사(2표)에 앞서 16위에 그쳤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영광, 282개 팀 5689명 선수 유치 1위

전남도 22개 지자체 올 전총 성과 해남 2위, 순천 3위, 여수 4위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는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을 들이고 있는 대표적 스포츠 마케팅 사업으로 꼽힌다. 기업 유치 못지 않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부지 제공 뿐 아니라 청정 기후조건, 편리한 교통망, 풍부한 볼거리·먹거리 등의 유치 전략을 내세우며 선수단 발길을 끌어들이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올해 가장 많은 선수단을 불러들여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끈 지자체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전남 22개 시·군의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성적표가 나왔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9 시즌(2018년 7-8월, 2018년 12월-2019년 2월) 전지훈련 유치 성과를 집계한 결과, 영광을 찾은 선수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시즌 282개 팀 5689명의 선수들이 영광을 찾아 훈련과 대회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인원 50로 집계할 경우 6만7700명이 영광에 머무르며 경제적으로 53억8500만원에 이르는 파급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종목별로는 농구(121개팀 1만 9043명)가 가장 많았고 축구(91개팀 4만2297명), 유도(36개팀 3666명) 등의 순이었다.

영광군의 경우 2018년 시즌에는 62개 팀(연인원

3만1690명)을 유치, 22개 시·군 중 5위의 실적을 거뒀지만 올해는 다양한 대회 유치가 공을 들이면서 가장 많은 선수단의 시선을 붙잡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남은 2018년 시즌 가장 많은 170개팀(연인원 5만6600명)을 유치했지만 올 시즌의 경우 134개팀(연인원 4만8600명)에게 훈련장을 제공, 2위를 기록했다. 이들 선수단이 평균 9.1일을 머무르면서 올린 경제 파급 효과는 38억 67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순천도 3번째로 많은 150개팀(연인원 3만7300명)의 선수단이 찾아 29억6900만원 상당의 파급 효과를 올렸고 ▲여수 4위(146개팀·3만4300명) ▲구례 5위(167개팀·3만2200명) ▲강진 6위(193개팀·2만8500명) ▲목포 7위(125개팀·2만6200명) ▲고흥 8위(41개팀·2만500명) ▲광양 9위(159개팀·1만4300명) ▲안도 10위(71개팀·1만3600명) 등의 순이었다.

목포는 2018 시즌 당시 해남 다음으로 많은 선수단(134개팀 연인원 5만1700명)을 유치했지만 올 시즌에는 7위에 머물렀다. 담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2개 시·군 중 가장 저조한 유치 실적을 기록한 지역으로 꼽혔다. 그나마 지난 시즌에는 8개팀(연인원 553명)의 선수단을 유치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올해는 아예 실적조차 내놓지 않았다.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전지훈련팀 유치가 지역의 스포츠 관광산업 발전과 비수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성의'한 것이 아니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열정이 있는 당신, 국립목포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세요

- 01 국립대학 육성사업 평가 2년 연속 최우수(A)등급 선정
- 02 대학혁신지원사업 신규사업 선정
- 03 LINC+ 육성사업 산학협력 고도화형 신규 진입 대학 선정

국립목포대학교가 드리는 특별한 혜택 BEST5

- 저렴한 등록금 연간 평균 390만원
- 풍부한 장학혜택 연간 평균 302만원
- 전노선 무료 통학버스 운영 2019년부터
- 편안한 학생생활관 신입생 50% 우선 배정
- 원스톱 학생 지원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

입학상담 061.450.6000



2020학년도 국립목포대학교 수시 신입생 모집

- 원서 접수 | 2019. 9. 6. (금) 09:00 ~ 9. 10. (화) 18:00 까지
- 합격자발표 | 2019. 11. 15. (금) 18:00 예정
- 합격자등록 | 2019. 12. 11. (수) - 12. 13. (금)